

# 내가 만든 개량물통

— 최우수상 / 문교부장관상 —



김한준

(부산 온천국민학교 3학년)

## 1. 잘 빠지는 물통 손잡이

우리 분단의 청소 날이었다. 동무들이 모두 돌아가고난 뒤 창문을 열고 비로 교실을 쓸기 시작했다. 동무들이 교실을 쓰는 동안 나는 물통을 들고 수도가에 가서 물을 가득 길러 교실로 돌아오고 있었다. 물이 가득 담긴 물통을 들고 끙끙대는 나를 보고, 6학년 누나가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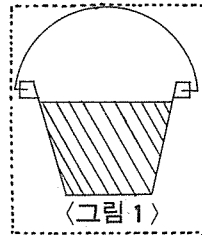
“애, 욕심 좀 봐 이렇게 물을 가득 담고 어떻게 가져 갈려고 그러니?” 하면서 물통을 함께 들어주었다. 수도는 멀고 한번 간 김에 많이 가져오려고 한 것이었는데, 내 욕심이 좀 부끄러웠다.

그런데 그만 사고가 생겼다. 물통의 손잡이가 빠져 물통이 복도에 나뉘는 바람에 삽시간에 물바다가 되고 누나와 나는 물로 옷이 흠뻑 젖고 말았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옷을 적서 버리게 미안하기 짝이 없었는데 “옷은 말리면 되니까 걱정마 복도는 내가 닦아테니 어서 물을 길어와”하고 말했다.

나는 무어라 해야 좋을지 몰라 얼른 손잡이가 빠진 물통을 들고 수도가로 가서 물을 길어와서 청소는 무사히 끝냈지만 나를 도우려다 옷을 버린 누나에게 미안한 생각이 떠나지를 않았다.

그리고 쉽사리 손잡이가 빠지는 물통이 원망스러웠다. 그래서 생각했다. 손잡이가 빠지지

아니하는 물통을 새로이 개량하여 이같은 불편을 없애기로 마음 먹었다.



〈그림 1〉

## 2. 좀더 편리한 물통 만들기

그런데 나는 물통을 혼자서 들면 손잡이가 빠지지않는데 두사람이 들면 쉽게 손잡이가 빠져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래서 물통의 구조를 잘 살펴보니 〈그림 1〉과 같이 철사가 꿰인 자리 양쪽에서 들게 되면 쉽게 빠져버리는 것임을 나는 발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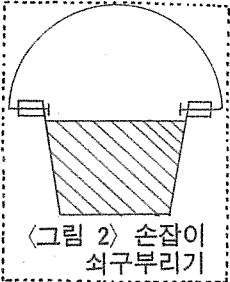
그렇다면 작은 물통을 사용하여 혼자 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작은 물통은 여러번 왔다갔다 해야하므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나는 여러 개의 물통을 자세히 살펴보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통의 손잡이가 잘 안빠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플라스틱 재생 물통이 부딪쳐도 잘 부서지지 않아 사용하기에 편리하지만 손잡이가 잘 빠지므로 이것을 개량해 보기로 하였다.

그렇다면 작은 물통을 사용하여 혼자 들 수 있다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작은 물통은 여러번 왔다갔다 해야하므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 나는 여러개의 물통을 자세히 살펴보고 플라스틱

으로 만든 물통의 손잡이가 잘 안빠지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플라스틱 물통은 재생 물통이 부딪쳐도 잘 부서지지 않아 사용하기에 편리하지만 손잡이가 잘 빠지므로 이것을 개량해 보기로 하였다.

### 3. 손잡이 쇠를 안으로 구부리기

물통의 손잡이를 <그림 2>와 같이 끝을 안쪽으로 끼워 구부려 사용하면 빠지는 것을 쉽게 막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잡는 부분이 한개 뿐이어서 두사람이 들게 될 경우에는 철사를 잡고 들 수 밖에 없어 대단히 불편했다. 두 사람이 들어도 불편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다.



### 4. 양손잡이 물통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었다. 손잡이의 잡는 부분을 두개를 만들어 끼웠다. 그랬더니 두 사람이 손쉽게 들어도 불편이 없는 물통이 되었다.

나는 내가 생각한 방법으로 물통을 새로 만들어 학교에 가져갔더니 선생님께서 “야, 이거 참 훌륭한데 한준이는 발명가가 된 거야.” 하시며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셨다. 양손잡이 물통을 사용하는 동무들을 볼 때마다 나의 조그만 생각이 여러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매우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어쩌다 혼자 물통을 들고 오는 동무를 보았을 때였다. 혼자서 양손잡이의 한 쪽만 잡게 되면 균형이 무너져 들 수가 없으므로 혼자서 양쪽을 잡고 가슴 앞으로 들면 불편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다시 혼자서 들 때 쓰도록 물통의 중간에다 또 한 개의 손잡이를 더 달았더니 이 문제는 해결이 되었으나 손잡이가 세개나 되어 보기도 싫고 복잡하여 재료가 더 들게 되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못되었다.

며칠을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고심을 했

다. 방과후 집에만 오면 물통을 만지작거리며 새로 철사를 구부리고 손잡이를 달고 하는 것을 보신 어머니께서는 쓸 데 없는 일을 한다고 꾸중을 하셨다. 그렇지만 나의 결심은 바꿀 수가 없었다. 계속해서 이 물통생각으로 며칠을 보냈다.

### 5. 개량 물통

드디어 생각해낸 것이 양손잡이 물통의 손잡이를 길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니 두사람이 들 수도 있고 한사람이 들 수가 있었는데 다소 불편한 점을 발견하였다. 무엇이냐 하면 두사람이 들 때는 문제가 없으나 한 사람이 들 때는 손잡이 두 개를 한 손에 잡아야 하므로 불편하였다. 그래서 손잡이 나무를 둥근 것으로 하지 않고 반으로 잘라서 달았다. 그랬더니 손잡이의 부피가 줄어들어 혼자서 들 때도 불편이 없었고, 두사람이 들어도 힘이 적게 들어 편리하였다.

그리고, 손잡이 쇠가 물통을 네곳에서 받쳐 주므로 두곳(손잡이 한 개 일때)보다 무게의 중심이 잡혀 균형을 유지하게 되므로 물이 넘치는 것을 다소 막을 수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렇게하여 나는 보다 편하고 들기 쉬운 물통을 만들어 낸 것이다.

### 6. 개량 물통을 만들고 나서

물통의 손잡이가 빠져 물을 쏟고 옷을 버려본 경험을 가진 동무들이 한두명이 아닐 것이다. 물건을 만드는 어른들도 이런 우리의 불편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머니로부터 꾸중도 듣고 동무들로부터 물통박사라는 놀림도 받아가며 다시는 나의 친구들이 이같은 불편을 당하지 않도록 애써본 결과 남 보기에는 보잘것 없는 것일지라도 나의 첫 발명은 이제까지 가져보지 못한 기쁨인 것이다.

달걀을 가슴에 품고서 광속에서 병아리를 깨게 하려던 에디슨이 발명왕이 되었듯이 나도 우리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개량하여 세계에 이름난 발명왕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